

# 조선시대 견평방

Gyeongpyeong-ba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공평동 유적은 조선시대 한양의 행정구역에서 중부中部 견평방 堅平坊에 속한다. 견평방은 조선시대 최고의 변화가이자 시전의 중심지였다. 순화궁順和宮, 죽동궁竹洞宮 등 왕실 가족의 사가인 궁가 또한 다수 자리하였다.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의금부와 의료와 약재를 관장하던 전의감 등의 관청이 견평방 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견평방은 한양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시전, 궁가, 관청 등 다양한 시설과 계층이 혼재하였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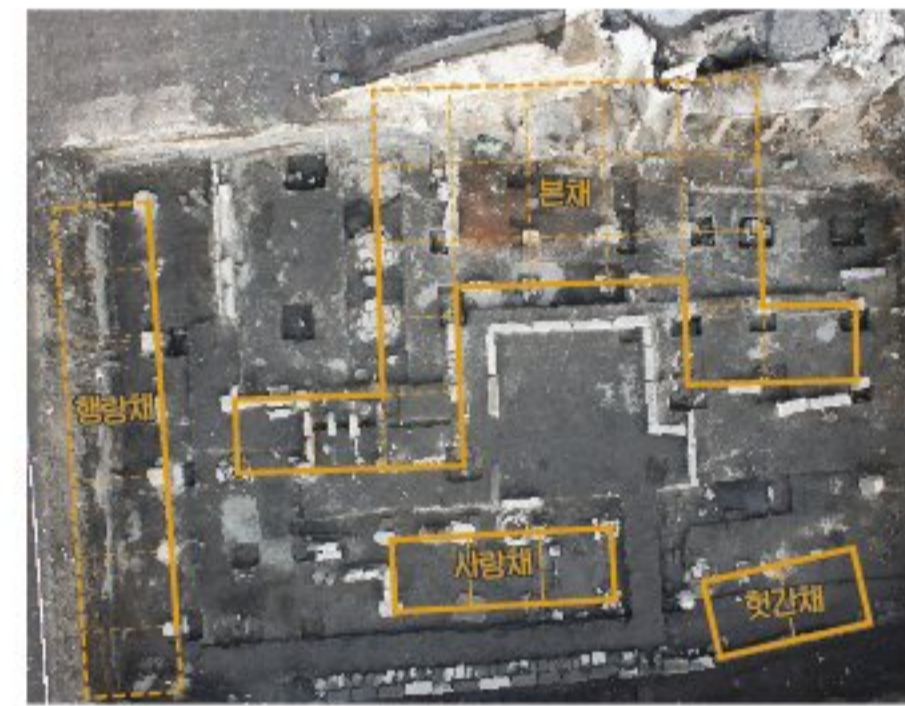


▲ 수선총도에서 보이는 견평방

## 전동 큰 집 (IV-1,2,3,4)

Large House of Jeon-dong

전동 큰 집(IV-1,2,3,4)은 공평동 유적에서 발굴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지로 중인中人 이상의 가옥 또는 관청의 부속시설물로 추정된다. 안마당을 둘러싼 기단석, 적심석, 그리고 긴 초석 등이 발굴되었으며, 4개동의 건물이 하나의 집을 이루고 있다.



## 골목길 모자 집 (IV-16)

'ㄷ'-Shaped House of an Alley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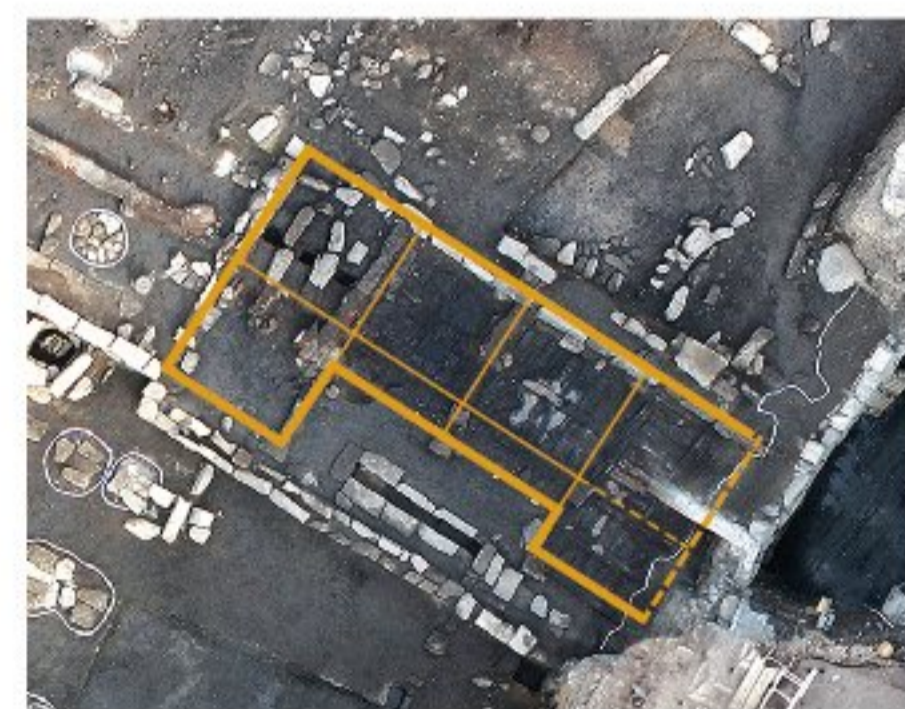
골목길 모자 집(IV-16)은 오늘날 우정국로에 해당하는 큰 길에서 갈라진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초석, 기단석, 고맥이석, 마당 박석, 배수로 등이 상당히 잘 남아 있어 모자 모양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이문안길 작은 집 (IV-31)

Small House at Imunan-gil

이문안길 작은 집(IV-31)은 온돌과 마루, 아궁이 등의 주택 바닥형식이 모두 발굴되어 조선 전기 한옥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6칸의 작은 집이지만 마룻널의 크기, 초석과 큰 길에 마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와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전동 골목길

Alleyway of Jeon-dong

공평동 유적의 중앙부에서 폭 210~305cm 내외의 골목길 3곳이 확인되었다. 전동 골목에 난 길이라 하여 '전동 골목길'로 불린다. 전동 골목길 3곳은 모든 시대의 발굴 층위에서 동일한 위치에 같은 폭으로 발굴되었다.



## 관람안내

개 관 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휴 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 오시는 길

지하철	종각역 3-1번 출구 (1호선)
버 스	조계사 정류장 (01-201) 151, 162, 172, 401, 406, 704, 7022
	공평/종각 정류장 (01-888) 종로01, 종로02
	종로1가 정류장 (01-012) 101, 103,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70, 601, 720, 721, 7212
	종로2가 정류장 (01-013) 101, 103, 143, 150, 160, 201, 260, 262, 270, 271, 273, 370, 470, 501, 720, 721, 7212, 111, 9301

주 차 센트로폴리스 지하 3-7층



주 소 03161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지하 1층  
 문 의 02-724-0135

한양의  
골목에서  
조선을  
보다

# GONGPYEONG HISTORIC SITES MUSEUM 공평동시유적전시관

# 공평동시유적전시관

Gyeongpyeong Historic Sites Museum

2015년 공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한양에서 근대 경성에 이르는 역사도시 서울의 골목길과 건물터가 온전하게 발굴되었다. 서울시는 도시유적과 기억을 원래 위치에 전면적으로 보존하여 공평동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였다. 이는 역사도시 서울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도시정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 개발과 보존의 상생

Coexistence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공평동 일대는 1978년 '공평구역 도심재개발지구'로 총 19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2010년까지 6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2014-15년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가 제 1·2·4지구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4개의 시대별 문화층에서 건물지와 도로 등 유구와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중 유구의 상태가 가장 온전히 남아있는 IV문화층(16-17세기) 유구를 전시관 내부로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공평동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정비사업에서 발굴되는 매장 문화재를 최대한 '원위치 전면 보존'한다는 '공평동 룰'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 철거 전 공평빌딩 모습



▲ IV문화층 발굴조사 완료 후 항공사진

# 공평동 룰

Gongpyeong-dong Rules

1. 매장문화재 위치를 고려한 건축설계
2. 매장문화재 보존 면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유적전시관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총괄 건축가와 협의
4. 보존된 유적전시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이문안길 작은 집



학습실



시전의 뒷골목 풍경



공평동 유적 출토 도기



전동 골목길



공평동 유적 출토 진단구



골목길 ㅁ자 집 VR체험



공평동 유적 문화층별 주요유물



전동 큰 집 축조 복원 모형



목각 수선총도

## 개발과 보존의 상생

Coexistence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 **공평지구의 개발과 보존**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Gongpyeong Area

## 조선시대 건평방

Gyeongpyeong-ba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 **건평방의 형성과 도시구조**  
Formation of Gyeongpyeong-bang and Urban Fabric
- **건축의 흔적과 복원**  
Traces and Restoration of Architecture
- **시전 사람들의 생활상**  
People and Their Lives

## 근대 공평동

Modern Gongpyeong-dong

- **건평방에서 공평동으로**  
From Gyeongpyeong-bang to Gongpyeong-dong
- **공평동의 변화**  
Transformation of Gongpyeong-dong

## 도시유적 아카이브

Historic Sites Archives

- **도시유적 발굴지도**  
Map of Excavation Sites